

책상에 앉아 ‘뚝 구름’ 잡지 말고 역외유출 차단 위해 뛰어라

광주·전남 미래 바벨 3대 役事 완공의 해 <6>

호남고속철 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호남선보다 일찍 KTX 시대를 연 경부선에서는 대구와 부산 등 정착지 역간 회비가 엮였다고 있다.

전해의 관광자원과 KTX시대를 품 품하게 준비한 부산시는 관광객 증가 등 나 홀로 KTX 효과를 누리며 있는 반면 대구는 소풍·의료 인구 등이 수도권은 물론 같은 지방도시인 부산에도 빨라드는 역외유출로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올 12월이면 KTX시대를 맞이한 광주·전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광주는 대구와 비슷한 규모의 내륙도시이고, 영호남을 대표하는 지방 대도시 등 여러모로 비슷한 도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와 비슷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광주시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타지역의 사례를 수집해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합대책 마련 사실상 ‘스톱’= 광주시가 내놓은 KTX대책 자료는 지난 2011년 광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126쪽짜리 ‘호남고속철도 개통 대비 광주지역발전전략 연구’가 사실상 전부다. 이 자료에서 인용된 타지역의 KTX 효과 분석 등도 대부분 2009년도에 머물러있다. 아마저도 연구논문 등을 짜깁기한 수준이다. 특히 올 연말 호남선 KTX개통과 가장 유사하고, 근접한 사례인 2010년 경부선 KTX 2단계 개통 이후의 연구 사례는 아예 없다.

하지만, 광주시는 현재 이 자료를 바탕으로 KTX개통 대책을 준비중이다. 각 부서별로 마련 중인 KTX대책도 이 자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다 대부분이 구체적인 대책 프로그램은 없고, 기존 사업만 나열해 놓은 ‘뚝 구름 잡기식’이다.

한 예로 부서별 대책 중 관광객 유치 대책을 살펴보면 골프 투어 프로그램 통해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내용뿐이다.

광주시가 추진할 KTX대책은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닌 만큼 통합조정 기능을 지닌 기획조정실의 기능을 강화해 종합적인 대책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KTX분야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

광주시 전략 연구

타지역 사례 짜깁기 수준

광주역 진입 싸고

아직도 논란 중

부산·여주 성공 거울삼아

방치된 어등산 개발

특급호텔·아웃렛 유치들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치과·안과 특화 나서야

대여서 KTX 부작용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인구·관광객 유입 전략 우선돼야= 광주·전남의 고속철도 시대 성공 여부는 인구와 관광객 유입에서 관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문화도시라는 명성답게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산업을 비롯한 MICE산업 확장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 지역 내 풍부한 먹을거리와 무등산 등 관광자원,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골프비용 등도 장점이다. 특히 3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도 KTX를 통한 인구유입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장점들을 적절히 연계한다면 KTX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광의 가장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쇼핑부문은 광주·전남의 취약점이다. 면세점 조차 없는 점을 감안하면 현 쇼핑 추세 중 하나인 프리미엄(명품)아웃렛 유치 등은 서둘러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실제 황무지나 다름없던 경기도 여주 지역은 신세계 아울렛이 들어오면서 2010년 기준으로 월 평균 30만명의 관광객과 3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개장 4년 만에 세계 10대 아울렛으로 올라섰다.

여주 아울렛은 현재 바로 옆에 기존과 비슷한 규모로 매장을 확장중에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만 3000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주는 아울렛 입주 전 중소상인들이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몰려드는 외지관광객들로 매출이 동반 상승하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기업간 상생 모델이 되고 있다.

광주시도 현재 방치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내에 프리미엄 아울렛과 특급호텔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게 지역 유통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자칫 전북 등 인근 도시에 먼저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선다면 광주·전남은 대구처럼 수도권에 이어 다른 지방도시에도 소풍을 흡수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다.

또 의료인구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 대형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치료의 영역·범위 분담 등에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의 장점인 안과와 치과 등의 분야를 특화한다면 부산처럼 의료 유입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KTX 광주역 진입 논란 등 지역 갈등 해소도 시급=지난해 KTX 광주역 진입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광주시는 일단 광주역으로 KTX가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해 말 호남선 KTX 운영사 선정 이후에나 경제성 등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KTX 정착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일단 송정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구간 시와·고속버스 노선 이전과 급호타이어 공장 이전 등을 놓고 광주시와 급호간 대립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시는 전남 서부권 등 일부 시와·고속버스 노선을 송정역 옆으로 이전하고, 송정역 뒤편 급호타이어 광산 공장의 이전을 통해 개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광주시의 계획에 대해 급호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급호 관계자는 “내부에서 전혀 논의된 적 없는 사안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져 난감하다”면서 “광주시와 (노선·공장 이전을) 상의한 적도 없으며, 상의할 계획도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KTX시대와 관련한 지역내 갈등을 푸는 것도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를 기록한 9일 전북 정읍역에서 광주방향으로 10km 떨어진 KTX 호남선 콘크리트 궤도 타설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다음 온도·하중·충격 등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관리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친 뒤 스티트보일러를 작동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무산 왜?

가능성 낮다는 것 알고도 무리한 유치

행정력 소모에 예산 1억5천만원 낭비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가능성 없는 유치 활동으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호 법적으로 유치가 불리한 기관을 데려오기 위해 무의미한 지역간 경쟁을 벌였고, 유치 추진 과정에 예산 1억5000만원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9일 전남도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가 지난 8일 열렸는데,

부산으로 사실상 결정돼 주무 부처인 환경부로 통보됐다”고 밝혔다.

이날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에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포함해 심의위원 36명 중 대다수가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부산 유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간 탄소배출권 매매를 담당하는 기관인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유치에는 그동안 전남과 부산이 경쟁했었다.

전남도는 나주에 들어서게 되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탄소배출권거래

소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주무 관청이 환경부로 결정되면서 유치 경쟁에서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KRX)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한국전력거래소(KPX)가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환경부는 금융시스템인 만큼 부산에 있는 KRX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주무 부처가 환경부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유치 경쟁이 일단락됐다.

특히 전남도는 전력거래소의 선물 거래가 불가능해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가 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고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난을 샀다.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소를 나주로 이전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전력거래소에서는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전남도는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력거래소에는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등 유치 준비 과정도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또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에 따른 인력 채용과 경제 효과가 터무니없이 과장됐고, 법적으로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부정적 시각이 있었지만 전남도는 무리하게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유치 활동을 펼쳤다.

한편 나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탄소배출권거래는 전력거래소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 (태광공회 삼일로 입구) : 02)2276-0567-9 강남점 (강남고속터미널 옆) : 02)3477-5110 종로27점 (국감제회 옆) : 02)733-0220 송파점 (선릉역 2번 출구) : 02)419-3388 경기 안성점 (구.시민회관 옆) : 02)421-2288 부평점 (부평역 옆) : 02)517-5110 수원점 (남문 옆) : 031)246-5110 의정부점 (모전로터리 총국생명 옆) : 011)821-6655 안양점 (백산소로2001 아울렛 옆) : 031)469-0110-1 평택점 (평택역 옆) : 031)658-5110 용인점 (용인내거리) : 031)336-1090 오산점 (국민은행 2층) : 031)378-4183 부천점 (롯데백화점 옆) : 032)329-4400 남양주점 (평내 호평역 옆) : 031)530-9900 부산 서면점 (서면로터리) : 051)818-8800 서면점 (서면로터리) : 051)256-7200 울산 울산점 (울산탈북로터리) : 052)268-2283 경남 마산점 (마산역 옆) : 055)297-6000 진주점 (중앙로터리 옆) : 053)745-9670 대구 광우점 (동대문로 47역 시거리) : 053)425-4440 삼척점 (삼척내거리) : 053)425-1511 남일동점 (아라대미극장 옆) : 053)425-7575 경북 포항점 (육거리) : 054)244-5110 안동점 (구.안동동고내거리) : 054)859-2248 광주 광주점 (금남로 47역 시거리) : 062)225-5110 광주점 (백운광장) : 062)651-4477 전남 순천점 (중앙시거리 지하상가입구) : 061)752-8845 전북 전주시점 (신복로터리) : 063)252-5728 군산점 (구.시청문 옆) : 063)446-0198 익산점 (북부시장거리) : 063)838-5600 남원점 (시청내거리) : 063)632-2626 대전 대전점 (도청 옆) : 042)254-5110 대전점 (충훈로터리) : 042)222-3388 대전점 (대전역 옆) : 042)256-4900 충남 천안점 (천안역 옆) : 041)553-2888 공주점 (공주순사거리) : 041)852-5110 충북 청주점 (한.해르 구.속리산 고속 및온천) : 043)22-1177-6 충주점 (삼천로터리) : 043)852-1414 강원 강릉점 (목천오거리) : 033)647-0588 춘천점 (철호광장 옆) : 033)253-5110 제주 제주점 (영양로터리) : 064)753-45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점(금남로 47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문의전화 (062)651-4477	문의전화 (061)752-8845
세기보청기(062)225-5110	세기보청기(062)651-4477	세기보청기(061)752-8845
세기보청기(062)225-5110	세기보청기(062)651-4477	세기보청기(061)752-8845
세기보청기(062)225-5110	세기보청기(062)651-4477	세기보청기(061)752-8845